

차용사기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이 은 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많아졌다. 당연히 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훨씬 형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는 가장 잦은 예가 '차용 사기'이다. 즉, 돈을 값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경우다. 분명히 나는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못 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은 죄가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갑자기 무죄라고 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아직 피같은 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개인의 운도 차가 다른 것은 사법기관 탓이 아니라 사기죄 자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차용사기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사기죄는 아니게 된다. 대부분 범죄가 수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이 동시이거나 근접한 반면, 사기죄는 돈을 빌려주고 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나야 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돈 값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피의자는 없고, 이에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요즘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송금내역만으로는 변제기, 이자, 명확한 차용인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차용금 용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용도를 숙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차용사기에 해당하며, 용도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내용도

차용증에 기재해 놓으면 민형사상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얼마전 대법원은 차용인이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선 선불리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일수록 용도, 변제방법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독촉을 하거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확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놓는다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효성, 봅슬레이 등 대표팀 응원 이벤트

효성이 4일부터 '효성과 함께 질주하라!' SNS 이벤트를 열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대표팀 선수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썰매 종목 불모지에서 세계 정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들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벤트는 ▲대표팀 선수단 유니폼에서 효성 로고 포착하기 ▲경기 동작을 따라 하는 사진 보내기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누리꾼은 효성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에 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21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케



이크 교환권, 손난로 인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효성은 지난해 9월부터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효성은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기탁하고 해외의료봉사단 '효성 미소원정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서울고등법원, 시민 안전 고민해주길



기 지 수첩
오 세 성 (산업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로 예정됐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재판인 만큼 취재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재판 방청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공개재판 방청은 희망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방청객을 선정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서로 방청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 역시 방청 희망자가 몰리며 충돌이 빚어졌고 지난해 8월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1심 결심 공판의 경우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결심 공판 전날 낮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기 시간이 길었던 탓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방청을 기다렸지만 모든 이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재판 당일 아침에 법원을 온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선 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새치기를 시도했고 이들 가운데 한 남성은 새치기를 만류하는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방청 대기줄이 전날 오후부터 생겨났다. 한 겨울에 시민들이 노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

단에 법원 관계자들이 이들을 해산시켰지만, 이러한 상황은 재판 당일 새벽부터 다시 연출됐다. 줄을 선 순서와 새치기를 둘러싼 언쟁도 벌어졌다. 당시 한 시민은 "새벽에 왔는데 법원이 문을 닫았기에 법원 밖에서 기다렸다"며 기자에게 치열한 방청 열기를 전했다.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법원이 별도의 방청 안내를 하지 않았기에 이전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쟁률이 높은 만큼 전날 일찌감치 야외에서 기다리는 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추운 겨울철인 만큼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재판부가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

/sesung@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봉사활동 3600시간 누적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1담당 1나눔' 활동에 2년간 총 78개 담당, 2231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3618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담당 1나눔은 담당 단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일봉사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 이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수리 'U+ 희망하우스', 사랑의 김장, 기부용 빵 만들기, 나눔트리 및 역사팝업북 제작, 중증장애학교 한사랑학교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수리 'U+ 희망하우스'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BNK경남은행, 5·6급 신입행원 입학식

BNK경남은행은 4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5·6급 신입행원 입학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손교덕 은행장은 8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연수 성적 우수자를 시상했다. 이어 신입행원 27명 모두에게 휘장을 달아주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BNK경남은행



한미약품, 새해 첫 업무 사랑의 헌혈로 시작

한미약품이 2018년 새해 첫 업무를 사랑의 헌혈 캠페인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8년째를 맞은 한미약품의 헌혈캠페인은 제약업계 최장기 공익 캠페인으로, 누적 참여자가 7322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캠페인'은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 연구센터, 경기도 팔탄 및 평택 플랜트와 국내 사업부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총 286명 임직원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긴급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새해 첫 헌혈캠페인에 참여한 한미약품 임직원들.

/한미약품

인사

-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신현은 ▽과장급 승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부장 윤선덕 △인천세관 심사국장 유광수 △인천세관 감시국장 송석범 △창원세관장 하남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 1급 승진 △자동차안전 연구원 자율주행실 홍윤석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 장재필 △제주본부 김용현 △성산검사소 류익희 ▽관리 2급 승진 △도로안전본부 자격관리처 장찬욱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김양숙 △전북본부 안전관리처 이종원 △철도항공안전본부 철도승인처 이지웅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기준처 김용달 △구로검사소 양영채 △이현검사소 임재곤 △진주검사소 오태석 △제주검사소 정광영 △자동차

- 차안전연구원 연구개발실 부품연구처 배중호
- ◆비즈니스워치 ▽승진 △부국장(산업부장) 신성우 △부장(개발기획팀장) 박창영 △차장(텍스워치팀장) 임명규 △차장(사진 담당) 이명근 △차장(텍스워치팀) 이상원 ▽전보 △증권부장(부국장) 김희석 △경제부장 박호식 △생활경제부장 김준동 △랭킹워치팀장 박수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연구개발 투자심의국장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 이태희
- ◆BC카드 ▽승진 △커뮤니케이션실 전무 최석진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양창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성택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박병영
- ◆계통건설 ▽전무대우 승진 △건축본부 김택중 ▽상무 승진 △토목본부 김기원 ▽상무보 승진 △윤리경영실 이준희 △토목본부 육기중 △경영정보실 김선학 △건축본부 오기섭
- ◆국회예산정책처 ▽임용 ▽추계세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부이사관) 최미희

부음

▲정의창 씨 별세, 정길수(포스코차이나 전 대표)·경림·철수(사업)·주수(사업)·완수(한진 상무) 씨 부친상, 이만희·최재림·심인숙·정해경 씨 시부상, 박

- 경희 씨 장인상=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6일, 02-2227-7500
- ▲손종순씨 별세, 천광희(안양 동안경찰서 정보계장)씨 장모상=4일 오전 5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협장례식장 1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043-731-4443
- ▲최태자씨 별세, 이창하(TV조선 심의실 차장)·창훈(삼본정밀전자 수석연구원)씨 모친상, 이윤희씨 시모상=4일 오전 5시 40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2290-9442~3
- ▲신경옥씨 별세, 김순기씨 배우자상, 김혜송(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혜수·혜리씨 모친상, 김형석(케이비피 대표)씨 장모상, 한정화씨 시모상=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6시, 02-2227-7500
- ▲박병민 씨 별세, 김준재(프로야구 KIA 육성지원팀 차장) 씨 장인상=4일, 인천 계양 천기와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032-546-4444
- ▲이태희(전 성주군의회 부의장)씨 별세, 재경(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재력(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재정(삼한기업 부장)·경수·정수(파란테크 이사)씨 부친상, 전일근(죽전동장)·권택기(휴먼플러스 씨앤씨 전무)씨 장인상= 4일 오전 4시 28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53-560-955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